

고려해운

창립 57주년 행사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창립 57주년을 맞아 지난 4월 15일 오전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1954년 4월 17일 창립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고려해운은 2011년 4월 현재 선복량 순위 30위(4만 8,593TEU)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함과 더불어 26년 연속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정석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해운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중점을 두어 개인과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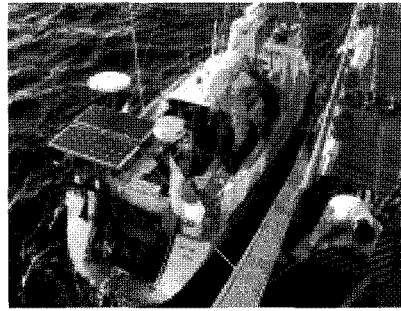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 근속자 및 육해상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으며 창립일을 기념하여 경주에서 춘계체련대회를 개최했다. 본사와 지점, 사무소가 함께 경주 토함산에서 새벽등반을 통해 사기양양 및 단결심 고취와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기근속자 표창으로는 20년 근속에 상무 정현용 씨와 계장 주민수 씨, 10년 근속으로는 과장 김현수 씨 외 12명이 있다. 모범사원으로는 대리 박성오 외 17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으뜸선장과 기관장 포상이 있었는데 선장 이승협 씨와 기관장 배중현 씨가 각각 포상을 받았다. 또한 제안노력상으로는 기관장 박태원 씨가 포상을 받았다.

대림코퍼레이션

일본 국적 조난 요트 구조

지난 2월 18일 17시 일본 미즈시마로 향하던 (주)대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기의석) 소유의



'DL BEGONIA' 호가 2011년 2월 24일 14시 40분 경 필리핀 루존 섬 북서단 50마일 지점에서 표류 중이던 일본국적의 요트 'TRISTAN' 호를 구조하였다.

당시 'DL BEGONIA' 호 선장(정재호)은 표류 선박으로부터 RUDDER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으며 조속한 병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구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필리핀 MRCC 및 회사에 보고 후 조난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본선의 항로를 이탈하여 표류지점으로 이동해 구조작업을 수행, 일본인 2명을 무사히 구조했고 건강상태 확인 및 탈진한 구조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조난자 들의 본국 송환을 위해 일본 해상 보안청과 연락을 취하며 가장 가까운 거리인 ISHIGAKI 항에서 하선 결정하고, 조난자들에게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했으며, 2011.02.26 03:40 ISHIGAKI 입항하여 일본인 2명을 무사히 귀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대해 지난 3월 27일 Japan Coast Guard 는 본선 선장에게 감사편지를 전달했다.

대한통운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대한통운(사장 이원태)이 회사 대표 모바일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4월 13일 밝혔다. 대한통운은 업계 최초로 회사 대표 모바일 홈페이지를 오

픈하는 등 물류업계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있다.

대한통운 모바일 홈페이지(m.korex.co.kr)는 사업 내용이나 네트워크 현황과 같은 회사 기본 소개부터, 사회공헌이나 최신 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통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구성돼 있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화면 구성과 기능 설정이 장점이다.

대한통운은 앞서 개발한 택배 모바일 홈페이지를 비롯해 스마트폰 택배 어플리케이션과 컨테이너터미널 어플리케이션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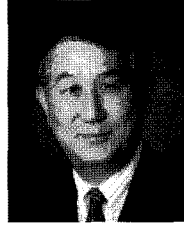
한편 대한통운은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품 행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되는 문제의 정답을 맞추거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리뷰를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600명에게 파riba게트와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지급하였다. 당첨자는 4월 25일 대한통운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었다.



STX팬오션

김윤기 신임 부사장 영입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이 컨테이너 영업 전문가 영입을 통해 해외 영업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STX팬오션은 현대상선 자문역을 지낸 김윤



기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4월 26일 밝혔다.

김윤기 부사장은 향후 STX팬오션의 국내외 컨테이너 영업 및 기획에 이르기까지 컨테이너 CIC(Company In

Company) 부문 전반을 총괄하게 되며, STX팬오션 컨테이너부문 해외 시장 개발 및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윤기 부사장은 30년 이상 컨테이너 영업 분야에서 근무해온 해외 영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해운에 입사했던 김윤기 부사장은 1985년 현대상선으로 자리를 옮긴 후 미주법인 대표를 거쳐 현대상선 컨테이너 영업을 총괄하는 컨테이너 사업부문 부문장(전무)을 역임했다. 2010년 이후에는 현대상선 컨테이너 부문 전반에 걸친 자문 역할을 담당해왔다.

한편 STX팬오션은 세계 30위권의 인트라 아시아(Intra-Asia) 선사로 급성장한 컨테이너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선대 경쟁력 및 해외 영업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상선

미주 동안 신규 항로 개설

현대상선(대표 이석희)이 그랜드 얼라이언스(일본 NYK, 홍콩 OOCL, 독일 Hapag Lloyd), 이스라엘 ZIM 등 4개선사와 손잡고 아시아와 미주 동안을 잇는 신규 항로인 NSE(New Savannah Express)를 개설한다.

현대상선을 비롯한 총 5개 선사가 참여한 이번 신규항로는 현대상선의 Panamax급 컨테이너선 2척을 포함해 총 9척의 컨테이너선이 투입 된다.

이번 NSE 항로의 특징은 부산, 중국, 홍콩 등 아시아와 미국의 사반나항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다. 통상 미주 동안 항로는 뉴욕항을 거쳐 사반나항을 기항했으나, 이번 신규항로는 아시아와 사반나항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운송시간을 4일이나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상선은 현재까지 4개의 미주 동안 서비스 항로를 운항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 서비스 개설로 총 5개로 늘어났다.

사반나항은 미주 동안의 대표항만으로 뉴욕항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지난해 연간 1,400만 TEU 물동량을 처리했다.

이번 NSE 서비스는 5월12일 첫 서비스를 개시하며, 현대상선 선박은 현대그레이스호(Hyundai Grace)와 현대유니티호(Hyundai Unity)가 투입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미주 동안 노선이 한층 다변화되고, 특히 사반나항 직항으로 고객에게 빠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신입 해상·육상 직원 랑데부 실시



4월 1일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은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2011년 초임 해기사 47명, 육상직원 20명과 함께하는 랑데부(Rendezvous) 행사를 가졌다.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신입 해상직원과 육상직원 상호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취지에서 열렸으며, 2011년 초임 해기사 47명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초임 해기사들은 해상직원 인재상인 ‘TOP Seaman’을 주제로 뮤지컬 형식의 퍼포먼스를, 육상 신입직원들은 한진해운의 핵심가치인 ‘고객 중심, 가치창출, 구성원 중시, 사회적 책임, 혁신’을 내용으로 한 응원단 퍼포먼스를 선보여 서로의 첫 발걸음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이날 오후 ‘육해상 직원 팀빌딩’ 시간에는 체육활동을 통해 상호간의 거리감을 줄이고, 협동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해상직원 제복 차림으로 참석한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 그룹의 새 가족이 된 여러분의 당당하고 능률한 모습을 보면서 한진해운의 희망찬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사령장을 수여했다” 며, “우리는 지난 61년의 항적을 나침반 삼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진해운 60년으로 재도약하여 100년 후에도 존경 받는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어 가자” 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 북항 재개발 유치시설 설명회

부산북항 재개발 유치시설용지를 개발할 사업자 공모 설명회에 국내 10대 건설사가 대부분 참석해 북항 재개발사업에 쏠린 열기를 반영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노기태)는 4월 13일 BPA 사옥 28층 대강당에서 GS건설과 현대건설 등 국내외 건설사 관계자들과 재무투자자 등 70여개 업체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항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기태 BPA 사장은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BPA가 사업에 공동으로 참가, 재개발사업의 투자 전망이 밝다며 공모에 많이 참

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BPA 측의 설명을 듣고 재개발사업지역을 둘러보는 등 북항 재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부지(17만5,000㎡)는 북항 재개발 사업지역(152만㎡) 가운데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복합도심(9만9,000㎡)과 IT·영상·전시(6만㎡), 민간제한(1만6,000㎡) 지구 등이다.

BPA는 이 지역을 해양문화와 관광, 상업, 업무, 전시, 주거 등의 다양한 테마와 첨단 건축이 어우러진 복합 용도로 개발하며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 19%의 지분을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BPA는 8월 2일 신청서를 접수받아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성 분석 등 재무계획과 단지활성화계획, 건축계획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와 가격 등을 평가, 같은달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

한편 북항 재개발사업은 최근 BPA가 세계적 마리나기업 SUTL그룹과 마리나시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달 중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입찰에 나설 계획이며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를 국제공모하는 등 연일 활기를 띠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 착공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는 4월 18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8개월간 1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곡부두 등 14개 부두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보강공사는 지난해 시행된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어 C등급(보통)을 받은 양곡부두와 가스부두도 포함되어 있으며 잔교식 구조물

인 양곡부두, 온산항 3부두, 울산본항 1,9부두의 하면보수와 중력식 구조물인 가스부두의 셀블럭 보수, 울산본항의 포장 보수, 방충재 및 차막이 보수, 조인트 교체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A~C등급은 시설물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D등급은 긴급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상태, E등급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상태로, 현재 울산항의 시설물은 운영상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UPA는 매년 관할 항만시설물에 대하여 절반씩 정밀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희망의 숲 만든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택)는 4월 13일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 일대 한강변에서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느티나무, 청단풍 등 나무를 심는 '희망의 숲' 조성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테마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는데 의미가 크며 이날 임직원들은 손수 심은 식재구역에 회사 이름이 적힌 지표석을 설치해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 '희망의 숲' 행사

를 통해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산, 하천변 및 자투리 공간에 총 3천 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으로 숲이 조성되면 서울 남산 면적의 67배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제물류협회

제 15차 중국산업시찰행사 실시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강성린)는 올해 해외 물류산업 시찰행사를 중국 양산항을 비롯하여 상해, 항주, 소주 등의 여정으로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4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FFA는 회원사소속 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외국의 물류산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 물류산업 시찰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 여정은 6월 1일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여 상해 푸둥 공항에 도착하여, 도착 미팅 후 양산항 견학을 시작으로 상해 및 항주 등을 방문하고 소주를 거쳐 마지막 날인 6월 4일 상해로 돌아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행사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국제물류협회(Tel.02-733-8000, 임택규 차장)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은 5월 6일까지이다. 접수는(Fax.02-733-0700, E-mail : kiffa@kiffa.or.kr)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해외 물류산업 시찰행사는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하카다항, 구마모토, 아소, 벳부 등을 시찰하는 등 회원사 임직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된 바 있다.

한국선급

해사노동협약 국내 최초 인증검사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4월 21일 국내 최초로 시도상선(주) 소속 마샬 아일랜드 국적 선박 마린

릴라이언스호를 대상으로 '2006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를 실시했다.

'2006 해사노동협약'은 현재 전 세계 12개국이 비준한 상태로 해상에서의 안전을 증진하고 선원이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에 채택됐다.

국내 1호 해사노동협약 교육 강사인 한국선급의 전정총 협약심사팀장이 진행한 금번 인증검사에서 한국선급은 '2006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했고, 이에 국내 최초로 마린릴라이언스호에 해사노동협약 이행 확인서를 발행했다.

이 이행확인서는 추후 마샬 아일랜드 기국의 지침에 따라 협약이 강제 발효되면 만기 해사노동협약 적합증서로 서환하여 발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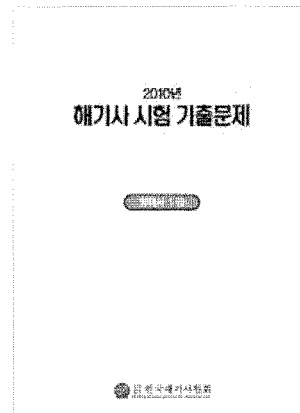
한국해기사협회

해기사시험 기출문제집 발간

한국해기사협회(회장 민흥기)가 '2010년도 해기사시험 기출문제집'을 발간했다. 해기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해기면허 준비를 하고 있는 해기사들의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과 시간적·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출문제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출간한 기출문제집은 2010년도 1회부터 8

회까지 출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해기사협회 회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한편 2010년도 해기사시험 기출문제 및 기타 기출문제 자료(정답 포함)를 '한국해기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지(www.mariners.or.kr) → 커뮤니티 → 시
험정보' 란에 공개되어 있다.

문제집의 내용으로는 2010년도 해기사시험 기
출문제집 항해사·기관사 1,2,3급이 있으며 배부
장소는 한국해기사협회 3층 민원센터이며 배부
시작 일시는 2011년 4월 11일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14주년 행사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학소)이 해양수산
을 통합한 국책연구기관으로 출범한지 4월 18일
로 14주년을 맞이했다. KMI는 내부회합과 향후



발전을 다짐하는 창립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KMI는 창립기념으로 구성원의 자기계발과 조직
발전을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전하진
HERA 인재개발원 대표는 '스마트 시대의
Winner의 조건'이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에서
SERA 즉 Story(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자),
Empathy(타인에게 감동을 주자), Resilience(실
패하더라도 탄력 있게 일어서자), Achievement
(마침내 성취하는 인생을 살자)를 강조했다.

전하진 대표는 허세는 버리고, 자신을 긍정적
으로 보는 '자존감'과 나의 있는 그대로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바람직한
세상을 꿈꾸며 노력할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성진, 한경진 한경대 총장(전 해양수
산부장관)은 'KMI 성장과 조직관리'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글로벌 시대에 KMI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세계 5위 해
양국가' 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해양수산 국제협력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과 구성원들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KMI는 창립기념일 행사로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창립의 모체인 1984년 한국해운기술
원 창립에 기여하신 분들과 KMI를 떠난 전직 임
직원을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 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해양대

장안대(중국)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한국해양대(총장 오거돈)와 중국 장안대가 양교
간 국제학술교류를 위해 협정을 체결했다.

4월 22일 한국해양대는 오거돈 총장이 4월 17
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장안대의 '개교 60주년 기
념행사 및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양교 간 국제학
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왔다고 밝혔다.

오거돈 총장은 17일 중국 장안대를 방문, 미국
미시간 대학 브라운 부총장, 네덜란드 트웬테 대

학 벨캄프 총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 대학 총장 토론회에서 '해양과 대륙의 조화로운 공존'을 주제로 발표했다.

18일에는 장안대의 개교 60주년 기념식과 '한·중 간 경제교류 경험과 발전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여 양교 간 학술교류의 점층적 발전에 대해 치하했다.

한편 19일 진행된 한국해양대와 장안대 간의 학술교류협정식(MOU)에서는 "해양 중심의 대학과 대륙 중심의 대학이 만나 서로 이질적인 요소를 상호 결합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물류, 환경오염 등에서 학문의 지평을 넓히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급 해기사 양성교육과정 입교

'내항상선 5급 해기사 양성과정' 제8기 교육생이 4월 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강신길) 영도신청사에서 입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했다.

총 78명(항해40, 기관 38) 교육생들은 이론교육 4개월 및 승선실습교육 1개월의 해기사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교육기간 중 선종별 직무교육과 안전교육 등도 병행하여 수료 후 즉시 내항선박에 승선 가능하게 된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은 내항상선 예비해기사로서의 책임감과 소속감 고취를 통한 우수 해기사 양성을 위해 교육생에게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기간 중에는 일정액의 훈련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항상선 5급 해기사 양성과정은 우수 해기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처음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271명의 해기사를 배출하여 내항상선 해기사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아시아 해운거래·정보 중심지로 도약

4월 26일 한국해운중개업협회(회장 염정호)과 부산발전연구원(원장 이언오)이 한국해운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시황분석 등을 담당할 '해운거래정보센터' 설립·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은 이기우 경제부시장, 염정호 한국해운중개업협회장, 이언오 부산발전연구원장, 데이비드 비어드(David Beard) SSY Consultancy & Research사 부사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해운거래정보센터' 설립으로 아시아권 해운정보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부산을 아시아권 해운정보 중심지로 조성, 국제해운거래소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약내용은 부산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해운중개업협회는 거래정보 수집·분석, DB구축, 운임지수개발 등 센터사업을 지원하며, SSY는 센터직원 전문교육 시행, 국제해운정보 및 분석리포트를 제공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은 센터설치, 인력채용, 예산집행 등 위탁운영 및 업무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SSY는 센터직원의 해운시황 분석능력 제고를 위하여 런던본사 파견교육(3~6개월)과 상해지사 전문가의 부산센터 방문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우선 오는 6월 중에 전문가 5명, 인턴사원 2명 등 모두 7명을 채용하고, 7월에는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해운거래정보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며, 2013년에는 센터를 대외조사팀, 정보분석팀 등 2팀 16명으로 확대, 세계 해운시장 동향 분석, 해상운임지수 패널리스트 운영, 운임파생상품 개발, 해운시황 리포트 발간, 해운거래DB 구축 등을 통해 부산시의 해운거래정보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현재 부산시는 '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참여방안, 재원 분담 등을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향후 국제해운거래소가 설립되면 '해운 거래정보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해운조합

박성진 부회장 선출

지난 3월 31일 개최된 한국해운조합(회장 김시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주)에스제이탱크 박성진 대표이사가 유조선 업종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성진 부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임·대의원, 조합원 그리고 조합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으며, "임기 동안 연안해운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진 부회장은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주)삼현 대표이사, (사)동래청년회의소 회장을 비롯하여 해운조합 16대~19대 대의원직을 역임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잔존유 회수 작업 착수

포항 앞바다에 침몰한 경신호의 잔존유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인섭)은 잔존유 회수 작업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경신호는 지난 1988년 침몰했으며 잔존유량 약 512톤 상당으로 알려졌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잔존유 회수작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3개월간 구난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총 4개 업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고, 업체별 사업 제안서를 기술·가격 분야로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 SMIT사(SMIT Singapore Pte. Ltd.)가 수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잔존유 회수작업은 침몰유조선 '경신호'에 남아 있는 잔존유의 대규모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193억원의 사업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잔존유 회수는 6월중 현장작업 착수 예정으로 포화잠수장비 등 각종 장비를 탑재한 전문 해상작업기지선을 침몰선박의 바로 위측 해상에 고정 배치하고, 포화 잠수사를 투입하여 선체를 천공하고 특수 펌핑장치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회수하게 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경계선단을 구성 운영하고, 작업 해역에 등부표를 설치하고, 작업해역인 호미곶 인근 관계주민 등을 대상으로 작업 안내문 발송 및 어업무선국을 활용한 안내 등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조업 어민 및 통항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한 통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황해객화선사협회

윤수훈 회장 선임



4월 4일 황해객화선사협회(회장 윤수훈)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성수 회장이 협회 회원사인 위동항운유한공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진인해운유한공사의 윤수훈 사장을 제6대 회장으로 새로이 선출했다고 밝혔다. 새로 선출된 윤수훈 사장은 1977년 흥아해운에 입사하여, 흥아해운 동경사무소 주재원, 흥아해운 전무이사, 황해객화선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진인해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